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Cotton Textile Industry from the Liberation to 1950's

徐文錫*

Seo, Moon-Seok

目

次

- | | |
|--------------------------------|----------------------|
| I. 머리말 | 2.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
| II. 해방이후 미군정기까지의 면방직공업 | 3. 대규모 귀속 면방직공장의 불하 |
| 1. 면방직공업의 상황과 관리 | IV. 한국전쟁이후의 면방직공업 |
| 2. 부문별 상황 | 1. 戰災復舊 |
| III. 정부수립이후 한국전쟁기까지의 면방직
공업 | 2. 부문별 상황 |
| 1. 부문별 상황 | 3. 대규모 귀속 면방직 공장의 불하 |
| | V. 맷음말 |

I. 머리말

해방 이후부터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인 고도성장이 시작되었던 1960년대 이전까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일제의 遺制인 歸屬財產과 援助였다. 먼저 귀속재산은 1930년대 이후 급격한 식민지자본주의화를 겪는 동안 급격하게 성숙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여러 형태로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원조는 당시에 한국경제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로 이 두가지가 해방 이후 1960년대 이전까지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연구는 한국의 본격적인 공업화의 前史라는 측면과 식민지적 경험과 한국의 고도성장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기로서 의의를 내포하고

* 本 研究센터 研究員, 檀國大學校 經濟貿易學部 講師(經濟學博士)

있기 때문에 연구가 더욱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요소, 즉 귀속재산과 원조라는 요소를 가장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방직공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당시 귀속재산 중에서 대규모공장의 대부분은 면방직공장이었으며 한국전쟁이후에 원조를 통해 복구와 설비의 증설을 급속하게 이루었던 가장 대표적인 부문이기 때문이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해방 이후 미군정기까지의 면방직공업에 대하여 해방 직후 면방직공업과 대규모 귀속 면방직공장들, 그리고 각 부문별 상황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기까지의 면방직공업에 대하여 각 부문별 상황,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대규모 귀속면방직공장들의 불하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IV장에서는 戰災復舊와 각 부문별 상황, 그리고 대규모 귀속면방직공장의 불하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V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II. 해방 이후 미군정기까지의 면방직공업

경성방직을 제외하면 해방 이후 대규모 면방직공장은 모두 일본인 소유였기 때문에 미군은 이것을 敵產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그리고 이시기에는 해방 직후 중단되었던 생산의 거의 대부분이 재개되었지만 정치적인 혼란과 원면과 전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각 면방직 기업체의 해방직후 상황과 이후의 관리, 그리고 자금, 원료, 조업, 생산측면을 각각 살펴본다.

1. 면방직공업의 상황과 관리

1) 해방직후 면방직공업의 상황

1945년 8월 당시 우리나라 면방직업체는 14개의 대규모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조선인 소유가 2개(京城紡織, 松高實業)이고 나머지는 일본인 소유의 공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실태가 파악된 면방직공장들을 설비측면에서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면방직협회'의 자료¹⁾에 의하면 해방 당시 총 337,312 추의 紡機와 9,609대의 織機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鐘淵紡績(紡機의 26%, 織機의 31%)과 東洋紡績(방기의 24%, 직기의 31%), 朝鮮紡織(방기의

1)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1957.

〈表 1〉 解放當時의 工場別 施設狀況表

工場別	紡績機(錘)			織布機(臺)		
	設置施設	未設置施設	總設備中各工場設備의比重(%)	設置施設	未設置施設	總設備中各工場設備의比重(%)
郡是紡績(大邱)	19,928	15,672	10.5	0	408	4.2
大日本紡(京城)	0	0	0.0	417	0	4.3
大和紡績(倉洞)	0	0	0.0	150	0	1.5
東洋紡績(京城)	45,328	0	13.4	1,440	231	17.3
(仁川)	35,088	0	10.5	1,292	0	13.4
朝鮮紡織(釜山)	40,000	10,304	14.9	1,264	49	13.6
朝鮮棉花(木浦)	0	0	0.0	86	0	0.8
朝鮮製麻(仁川)	4,480	0	1.3	0	0	0.0
鐘淵紡績(光州)	35,104	3,264	11.3	1,440	70	15.7
(京城)	48,320	1,400	14.7	1,525	0	15.8
所屬不明確	0	48,224	8.9	0	211	10.6
小計	228,248	78,864	91.0	7,614	969	89.3
京城紡織(京城)	25,600	4,600	8.9	896	0	9.3
松高實業(開城)	0	0	0.0	130	0	1.3
小計	25,600	4,600	8.9	1,026	0	10.6
合計	253,848	83,464	100.0	8,640	969	100.0
總合計	337,312		100.0	9,609		100.0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1957, I-12~13면에서 작성.

주 : (1) 본 표에서 미설치 시설이라 함은 설치중에 있는 설비를 포함함.

- (2) 이외에도 吳羽紡績 大田工場, 朝鮮紡織 大邱分工厂, 朝鮮麻紡績 全州工場, 鐘淵紡績 春川工場의 統計는 원 자료에 빠져 있음.
- (3) 京城紡織과 松高實業은 조선인 소유공장이므로 편집과정에서 분리하였으며 소속이 불명확한 설비는 일본인 소유로 간주하였음.

15%, 직기의 14%) 등의 대규모 적산기업체들이 전체 방기의 65%, 전체 직기의 75% 정도의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설비들 중 일제가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疏開해 온 설비들은 아직 설치되지 않아서 미설치 설비로 있거나 이송 중이었기 때문에 소속이 불명확한 것들이었다.

2) 大規模 敵產 綿紡織 工場의 管理

적산기업을 관리했던 미군정은 각 공장을 몇 개의 계열로 통합하여 각각의 공장에 관리인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히 면방직업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商工部내에 '綿紡織工業運營部'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하였다.²⁾

2) 大韓紡織協會, 위의 책, I-62면.

産業研究

鐘淵紡績株式會社의 軍政廳 관리기구인 朝鮮實業公社가 각 업종별로 분류되면서 紡織工場 運營부가 새롭게 조직되어 朝鮮實業公社 산하에 있었던 4개 방직공장(鐘淵紡績 光州工場, 京城工場, 春川工場과 朝鮮麻紡織 全州工場)과 9개의 被服工場을 관할하게 되었다.

미군정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관리를 전체 적산방직공장으로 확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적산공장내에서도 조선인 소유자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시도는 무산되었다.³⁾

이러한 계열관리체제속에서 미군정은 각 공장에 管理人을 선정하거나 임대계약을 맺어 이들로 하여금 공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미군정시기에 적산면방직기업들을 관리했던 관리인과 이들의 교체과정은 아래의 <表 2>와 같다.

<表 2> 主要 歸屬綿紡織工場의 管理人 交替過程

日帝時代 工場名	管理人 및 貸貸人	拂下人
郡是紡績 大邱工場	· 정기남(47.4.11) → 崔士烈(47.5) → 鄭浩宗(49.11.2) → 姜一邁(51.9)	薛卿東 (55.8)
大日本紡績 京城工場	· 池善吉(46.6) → 양재의(46.8) → 임상걸(47.3) → 金澄楠(49.5)	申麟均 (52.3)
東洋紡績 仁川工場	· 崔楠(45.10) → R. 베크대위(46.10) → 崔光源(47.8) → 任文桓(48.12) → 徐廷翼(49.9)	徐廷翼 (55.8)
吳羽紡績 大田工場	· 金鍾奎(47.8)	李錫午 (51.10)
帝國製麻 仁川工場	· 鄭奎成(45.10) → 楊宇朝(48.1) → 中學均(49.2) → 徐廷翼(49.10.1)	張龍雲 (52.9)
朝鮮紡織 釜山工場	· 河元俊(45.11) → 崔士烈(46.5) → 鄭明石(47.5) → 鄭浩宗(48.4) → 姜 一邁(51.9)	姜一邁 (55. 10)
鐘淵紡績 京城工場	· 金成浩(45.10) → 金學洙(46.6) → 洪貞模(48.12) → 玄槿(53.8) → 洪貞 模(54.3)	白南一 (56.1)
鐘淵紡績 光州工場	· 金澄楠(45.11) → 金澄楠(48.10)	金澄楠 (51.11)

자료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1955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제2부, 제3

부 ;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90, 135면에서 보완편집재인용.

참고 : 팔호 안은 관리인 임명일자임.

위의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인들은 자주 바뀌었으며 특히 규모가 큰 공장일수록 그 바뀌는 횟수가 많았다. 불허될 때까지 鐘淵紡績 光州工場의 관리인인 金澄楠과 吳羽紡績 大田工場의 관리인인 金宗奎를 제외하면 거의 5~6번씩이나 바뀌었으며, 특히 미군정

3) 또한 여러 가지 혜택을 直轄工場들에게만 주게 되자 朝鮮人 紡織工場關聯者들이 업계공동의 의견을 제시할 조직으로서 '朝鮮紡織協會'를 1947년 4월 2일에 결성하였는데, 이 단체는 향후 한국의 방직업계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위의 책, 6면). 이 때에 탄생한 '朝鮮紡織協會'는 정부수립 이후 1949년에 '大韓紡織協會'로 개칭하고 이후 원료의 구매와 공급, 그리고 원조물자의 배분문제 등의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면서 방직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시기에 잦은 교체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결국 이 시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관리인들은 주로 일제하의 관리, 미군정청 관리, 혹은 상공업자, 직원 등의 신분으로 각 공장에 연관을 맺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정⁴⁾되었으며, 해방 직후 각 기업체들에서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벌였던 노동자들은 거의 배제되었다.⁵⁾

2. 부문별 상황

1) 자금

이 시기에는 관리인들에 의해서 설비가 해체되어 판매가 이루어질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신규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새로운 투자보다는 각 공장들이 가지고 있던 설비들을 정비하는 한편 미설치된 설비들을 설치하여 생산함으로써 일정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내의 정치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軍政을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미군정의 정책오류도 겹쳤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거나 원료의 수입 등에 관한 대규모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 원료

면방직공장들은 원료의 부족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면방직공업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되는 원면의 부족이 바로 그것이었다.

해방이 되자 국내의 원면수집이 거의 불가능해져서 원료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해방 당시의 원면재고는 약 1,875파운드(國產棉 1,612萬파운드, 北支(北中國)綿 263萬파운드)에 불과하였다. 이 수량은 1944년 년간소비량 5,392파운드와 비교해 볼 때 약 5개월 정도의 수량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⁶⁾

일제하에서 면화재배가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서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집도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해방이 되자 경작농민들이 반발하여 수집은 물론 수확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는 거의 국내산 원면을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1946년에는 그나마 경작되었던 원면도 작황이 극히 부진하였다.

면방직공장들이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던 1946년 이후 국산면은 면방직공장 소비량의 약

4) 관리인들의 자세한 출신배경은 서문석, 「귀속 면방직기업체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89면 참조.

5) 성한표, 「8·15 직후의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한국사회연구2』, 한길사, 1984 참조.

6) 大韓紡織協會, 앞의 책, 1957年, I-33면.

産業研究

2~5%만을 충당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된 원면으로 충족되었다. 정부수립 이전 까지의 국내산 면화의 수확과 수집 상황은 〈表 3〉과 같다.

〈表 3〉 年別 國產綿(實綿)收穫, 收集統計

區 分	收 穫 量(斤)	收 集 量(斤)	收集量/收穫量(%)
1943	241,836,755	143,730,011	59.4
1944	195,324,131	128,420,000	65.7
1945	109,210,150	0	0.0
1946	95,900,107	4,693,000	4.8
1947	55,522,945	7,071,000	12.7
1948	87,560,100	4,524,416	5.1

자료 :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各年度에서 作成.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5년에는 수집량이 전혀 없었고, 1946년의 경우 국산면의 수확은 1943년에 비해서 약 40%수준이었으며, 그 수집은 수확량의 5%정도에 불과했다. 이후 몇해를 제외하고는 수집량이 수확량의 10%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의 정치적 혼란에도 그 원인이 있었으며 해방 이후 급증한 가내수공업적인 생산에 원면이 사용되었던 이유도 있다. 그 결과 해방 이후부터는 국내산 면으로 면방직공업의 원료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수립 이후에 미국산 원면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부터는 수확조차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1947년에 GARIOA원조자금에 의한 원면 도입이 시작되었고 수입된 원면의 배분은 과거 3개월간의 원면소비실적, 설비추수, 운전가능추수와 당시의 원면재고량을 참작하여 배분하기로 결정되었다. 원면은 미군정당국에서 자금을 책정하고 구매를 담당하였으며 원면이 부산과 인천항에 도착하면 東洋棉花株式會社에서 보관하고 관리하였다. 최초로 도입된 원면은 당시 조업중이던 京城紡織, 朝鮮紡織, 高麗紡織, 全南紡織, 第一紡織, 東洋紡績, 朝鮮製麻 등의 7개 회사에 각각 8,454俵가 배분되었다.

그러나 도입된 원면은 품질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저장되었던 것으로 생산능률이 나 채산면에서 매우 저조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군정에 의한 구매제한과 원면의 구매에 생산자들이 직접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 문제는 이후의 ECA원조사업에서는 실수요자대표들의 希望品等과 도입시기가 참작됨으로써 다소 해결되었다.

3) 操業

1945년 9월부터 鐘淵紡績 光州工場과 당시 대표적인 조선인 소유 기업체인 京城紡織株式會社가 조업을 재개하였고, 그 뒤를 따라 大和紡績, 朝鮮製麻 등이 조업을 개시하여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 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1946년부터는 거의 모든 공장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하지만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그나마 잊은 단전으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이념대립의 색채를 띤 労資對立으로 노동생산성은 날로 저하되었다. 또한 외국에 의존하고 있던 機料品마저 그 재고량이 부족하여 조업개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① 방직부문

1947년 후반기부터 원면, 연료, 그리고 전력이 부족하여 부분적인 조업단축이 행하여졌고, 1948년 5월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송전이 중단되어 전면적인 조업단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군정초기에 '民需物資補給計劃'에 의해 각종 물자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물자는 당시 한국의 방직공업이 거의 일본제 기계로 조업이 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미군정에 의해 독단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원료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었다.⁷⁾ 당시의 조업상황은 <表 4>와 같다.

<表 4> 解放後 美軍政期의 年別 紡績 操業統計(1947~1948년)

項 目	單位	1947	1948
設備錘	錘	(275,390) 275,390	(288,256) 284,395
對設備運轉率	%	53.10	57.02
運轉錘累計	錘	42,943,916	46,887,133
作業日數	日	218	285
作業時間	時間	2,949	2,896
運轉時間	"	2,349	2,313
作業人員累計	名	1,220,312	1,557,006
20'S樞當使用人員	"	56.24	68.33

자료 :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各年度.

주 : 이하에서 ()안의 숫자는 연말 수치임.

<表 4>에서 보는 같이 이 시기의 조업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설비의 효율성을 나타내 주는 對設備運轉率이 1947년 53.10%에서 1948년에는 57.02%로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작업일수는 218일에서 285일로 늘어난데 비해서 작업시간과 운전시간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리고 조업능률을 나타내는 20'S樞當 使用人員은 56.24명에서 68.33명으로 상승하여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이 시기는 조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기 보다는 노동투입과 작업시간의 확대를 통하여 생산의 확대를 추구하면 시기로 파악된다.

7) 이 물자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1952년에 사용불가한 품목들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産業研究

② 직포부문

전반적으로 직포부문도 역시 조업능률이 감소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원인은 방적부문과 비슷하게 국내 정치상황의 혼란과 원료의 부족, 특히 북한의 송전중단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의 직포부문의 조업상황은 아래의 〈表 5〉와 같다.

〈表 5〉 解放後 美軍政期의 年別 織布 操業統計(1947~1948년)

項目	單位	1947	1948
設備臺	臺	(9,297) 9,297	(8,744) 8,732
對設備運轉率	%	54.51	56.02
運轉臺累計	臺	-	1,408,908
作業日數	日	275	278
作業時間	時間	-	2,816
運轉時間	"	-	2,304
作業人員累計	名	1,299,020	1,380,525
廣木1疋當使用人員	"	1.64	2.04

자료 :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各年度.

주 : 1) ()안의 숫자는 연말 수치임.

2) 해방 이후의 면방직업계의 統計는 1947년부터 시작되었다.

위의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포부문의 조업상황을 살펴보면 對設備運轉率이 1947년에 54.51%에서 1948년에는 56.02%로 증가하였으며 작업일수는 275일과 278일로 거의 비슷하였다.

하지만 조업능률을 말해주는 廣木 1疋當 使用人員에서는 1.64名에서 2.04名으로 방적부문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4) 生産

이 시기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원료의 선택과 適期導入을 추진하였으며 전력 및 연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補修機料品의 공급, 기술과 기능연마에 주력하여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던 설비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생산의 증가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송전중단으로 인해 1947년보다 오히려 1948년의 생산이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① 방적부문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이 시기 방직무문의 생산량은 북한으로부터의 송전증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비에 힘입어 소량이나마 증가하였다. 특히 방직공장 자체에서 사용하는 原絲는 감소한 반면 외부로 판매하기 위한 賣絲는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방직공장 자체에서의 수요보다는 외부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측면과 아직 직기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당시의 생산상황은 아래의 〈表 6〉과 같다.

〈表 6〉 解放後 美軍政期의 年別 紡績 生產 統計(1947~1948년)

項 目	單 位	1947	1948
原絲生産量	파운드	11,165,700	10,456,715
20'S換算量	"	7,546,935	6,917,984
賣絲生産量	"	1,129,118	2,645,325
20'S換算量	"	1,131,826	2,313,072
綿絲實生産合計	"	12,294,818	13,102,040
20'S換算量合計	"	8,678,761	9,231,056
同上樁換算量	樁	21,696.90	23,077.63
20'S8時間1錘量	파운드	0.276	0.197
20'S1時間1錘量	"	0.035	0.025
平均番數	番數	15.04	14.54
原綿消費量	파운드	15,272,062	16,028,018
收率	%	80.50	81.74

자료 :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各年度.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原絲와 賣絲를 합한 綿絲實生産量은 1945년에 645,588파운드, 1947년에는 12,294,818파운드, 1948년에는 13,102,040파운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S當1時間1錘量은 1947년에 0.035파운드, 1948년에 0.025파운드로 나타나 생산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原綿消費量에 대한 綿絲生産量을 나타내는 收率은 1947년에 80.50%에서 1948년에는 81.74%로 그 수치가 상승했다. 이것은 생산기술 측면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을 쌓은 것으로 풀이된다.

② 직포부문

방직부문의 생산은 증가하였는데 반해 직포부문의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원면의 소비량도 감소하였으며 설비의 효율도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생산상황은 아래의 〈表 7〉과 같다.

産業研究

〈表 7〉 解放後 美軍政期의 年別 織布生産統計(1947~1948年)

項 目	單位	1947	1948
綿布生産量	疋	764,761	692,042
廣木換算量	"	748,599	676,620
原糸消費量	파운드	11,169,984	10,534,582
計算原糸量	"	9,653,639	9,143,750
收率	%	86.43	86.80
廣木 8時間 1臺量	碼	21.93	19.21
廣木 1時間 1臺量	"	2.74	2.40

자료 :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各年度.

위의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綿布生産量은 1945년에 38,113疋, 1947년에는 764,761疋을, 1948년에는 692,042疋을 생산함으로써 증가하던 생산량이 1948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原絲消費量에 대한 綿布生産量을 나타내는 收率을 보면 1947년에 86.43%에서 1948년에는 86.80%로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織機 1臺가 1時間동안 생산한 廣木의 數量을 나타내는 廣木 1時間1臺量은 2.74碼에서 2.40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생산설비의 노후화 기술·機料品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III.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기까지의 면방직공업

한국전쟁직전까지 활발한 재정비과정을 진행중이던 면방직공업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체설비의 60~70%가 피해를 입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와 함께 戰費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규모 귀속 면방직기업체들이 불하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정부수립 이후의 상황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拂下를 살펴보았다.

1. 부문별 상황

1) 資金

정부수립 이후 자금지원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ECA자금과 정부보유달러를 통하여 1949년에 이루어졌다. 1949년도분 ECA자금 53萬달러로 320,464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하였다. 이 물품은 1950년 4~7월 사이에 입하되었지만 한국전

쟁으로 인하여 인수가 늦어지고 있다가 1953년에 가서야 각 공장들에 인수되었다.

한편 政府保有弗 23萬달러로 1949년 12월 機料品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준비미흡과 한국전쟁으로 유보되었다. 이 자금은 1951년 5월에 집행되어 針布類는 미국에서, 기타 품목은 일본에서 구매하였다. 총 229,999.82달러로 일본에서 이 중 약 32%에 해당하는 73,895.04달러를, 미국에서는 약 68%에 해당되는 151,604.78달러에 해당하는 현품을 구매하였다. 이 機料品은 1951년 12월~1952년 5월까지 분할 입하되었는데 바로 이 機料品들이 전후의 재건계획을 뒷받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1951년 12월 긴급재건계획에 필요한 機料品 도입자금으로 1,764,000달러를 계상하였고 이 중 1차로 緊急機料品 도입자금으로 583,582달러의 CRIK자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매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CRIK자금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결국 긴급재건계획에는 이 자금이 쓰이지 못하였다. 이후 1953년 2월 583,581.13달러의 政府保有달러를 배정받아 일본으로부터 55년 2월까지 針布類, 工具 등의 機料品을 들여왔다.⁸⁾

1952년 11월 정부의 '외화대부시책'과 1953년 2월의 통화개혁으로 말미암아 소비물자와 시설물자의 도입을 촉진하여 국내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政府保有달러 방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政府保有달러 591萬달리를 면방직설비 도입자금으로 확보하여 168,200추의 신규설비도입을 확정하였다.

1952년도 UNKRA자금중 면방직공업 부흥자금 230萬달리를 배정받았다가 1953년에 50萬달러가 늘어난 280萬달리를 배정받았다. 이 자금으로 55,440추의 방직기를 도입하여 전남방직, 대전방직, 금성방직에 각각 18,480추를 배분하였다. 또 이 해에 정부보유 583,582달러로 각종 機料品을 구입하여 설비들을 정비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생산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原料

이 시기 면방직공업의 원료는 여전히 국내의 면화생산량이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수집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해방 당시의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수확과 수집이 가장 많았던 1943년(수확량: 241,836,755斤, 수집량: 143,730,011斤)과 비교할 때 수확량은 약 22%에 불과하였으며, 수집량은 약 5%에 불과한 수량이었다. 특히 수집량이 적었던 것은 당시 수집에 응하지 않고 각자 판매하거나 급격히 늘어난 소규모 공장들에서 수요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⁹⁾ 이러한 수량으로는 당시의 원면 소비수준에

8) 구체적 수입상황에 대해서는 大韓紡織協會, 앞의 책, 28~30면을 참조.

9) 당시 대구지방의 섬유업체들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박희진의 연구에서는 급격하게 소규모 섬유업체들이 증

터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한국전쟁기에 더욱 감소하였다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1947년 원면의 수입 이후 국산원면의 충당비율은 1949년에는 0.1%까지 하락하였다. 미국으로부터의 원면도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수확량, 수집량, 충당비율이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47년 미군의 GARIOA원조자금으로 미국산 면이 도입된 이래로 여러 원조자금에 의하여 원면이 도입되었다.¹⁰⁾ 이 원면은 과거 3개월간의 원면소비량, 설비추수, 운전가능추수, 원면재고량 등을 참작해서 할당비율을 정하여 배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원칙은 각 공장들의 설비가 정비되고 생산능률, 생산품의 종류, 작업시간 등의 원면소비조건이 차이가 나자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원면의 연간 소요물량이 8,400萬파운드였지만 확보가능한 추정량은 5,000萬파운드밖에 되지 않아 필요량의 약 60%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원면의 할당문제는 주요한 문제였다.

이에 1950년 2월 21일부터 1950년 6월 20일까지의 4개월간을 기준으로 배분비율이 재작성되었는데 종래의 할당기준을 대폭 수정한 각 공장들간의 배당비율을 보면 全南紡織 光州工場, 高麗紡織 永登浦工場, 東洋紡績 仁川工場, 第一紡績 서울工場, 朝鮮紡織 釜山工場 등 대규모 귀속기업체들이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였다.

3) 操業

1950년 초에 원료의 부족을 예상하여 放出番手¹¹⁾를 細番手化해서 효율이 저하되었고, 제한송전으로 인해 거의 모든 공장들이 8시간 작업만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自家發電施設을 보유했던 朝鮮紡織, 全南紡織, 高麗紡織 등은 2교대나 3교대를 할 수 있었다.¹²⁾

① 방적부문

정부수립이후 약 30萬錘에 이르던 紡機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0년에는 94,000여대로, 1951년에는 약 78,000여대로 감소하였다. 이는 1949년과 비교할 때 약 74%가 줄어든 상황이었다. 그리고 전쟁의 피해를 겪지 않았던 경상남북도 일부의 공장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하였다. 당시의 조업현황은 아래의 <表 8>과 같다.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박희진, 「대구지방 섬유업체의 연구」, 경제사학회 발표논문, 1997, 5월).

10) 자세한 내역은 大韓紡織協會, 앞의 책, 34~35면을 참조.

11) '番手'란 무게 1 파운드(pound)의 실에 포함된 840 yard 길이의 실타래 수를 가리킨다(權泰橚, 『韓國近代紡業史研究』, 一潮閣, 1989, 73面 참조).

12) 大韓紡織協會, 앞의 책, 62~63면.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 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表 8〉 政府樹立以後 韓國戰爭期까지의 年別 紡績操業統計

項 目	單位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設備錘	錘	(288,256)	(304,522)	(94,592)	(79,794)	(137,797)	(177,432)
		284,395	297,205	258,155	71,146	119,159	157,809
對設備運轉率	%	57.02	67.37	51.49	78.21	73.10	81.10
運轉錘累計	錘	46,887,133	89,884,751	73,485,862	43,443,506	65,153,355	91,680,041
作業日數	日	285	295	308	324	318	313
作業時間	時間	2,896	4,100	5,568	6,974	6,465	6,607
運轉時間	"	2,313	3,591	4,432	6,246	5,984	5,731
作業人員累計	名	1,557,006	2,347,167	1,829,827	905,073	1,335,683	2,125,625
20'S相當使用人員	"	68.33	48.71	41.88	39.58	34.00	37.12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1957 ;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各年度.

위의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비의 운전효율을 나타내는 對設備運轉率도 정부수립 시기까지는 50%내외였던 것이 1949년에 이르면 약 67%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각 공장의 정비로 인해 조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는 51.49%로 급락하였다가 1951년에 약 78%정도로 급등하였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해진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설비추가 급격히 감소한 후에는 피해를 보지 않았던 공장들의 가동이 극대화되면서, 대설비 운전율이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업일수와 작업시간, 운전시간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피해를 보지 않은 공장들의 조업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업의 능률을 보여주는 20'S相當使用人員은 1949년 48.71명에서 1950년에는 41.88명으로, 1951년에는 39.58명으로, 1952년에는 34.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조업의 능률면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 1953년에 약 37명으로 증가한 것은, 이 시기에 신규설비도입과 전후복구과정에서 인력을 필요로 했던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업상황은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복구사업이 진행되는 1953년이 되면 한국전쟁이전의 상태로 모든 면에서 회복하게 된다.

② 직포부문

1949년까지 약 9,000臺 정도를 보유하였던 직기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0년에는 3,400여대로, 1951년에는 1,800여대로 급감하였다. 이후 1952년이 되자 약 3,300여대로 증가하여 전쟁이전의 약 1/3수준이 되었다. 당시의 직포부문 조업상황은 아래의 〈表 9〉와 같다.

產 業 研 究

〈表 9〉 政府樹立以後 韓國戰爭期까지의 年別 織布 操業統計

項 目	單位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設 備 臺	臺	(8,744) 8,732	(8,970) 8,763	(3,487) 7,654	(1,883) 1,706	3,334	3,715
對設備運轉率	%	56.02	72.42	59.94	95.90	69.70	89.66
運轉臺累計	臺	1,408,908	2,851,810	2,726,616	1,269,135	1,819,193	2,554,452
作 業 日 數	日	278	292	288	333	312	313
作 業 時 間	時間	2,816	3,696	4,707	7,355	5,606	6,717
運 轉 時 間		2,304	3,595	4,754	6,201	6,260	6,135
作業人員累計	名	1,380,525	2,072,569	1,878,216	896,116	1,191,309	1,655,698
廣木1疋當使用人員		2.04	1.33	1.29	1.20	1.13	1.14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년도.

위의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수립이전에는 약 50%대에 머무르던 對設備運轉率이 1949년에 이르면 72.42%로 급격히 상승한다. 이것은 방적부문과 마찬가지로 각 공장이 적산설비의 정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업에 임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0년에 약 60%로 감소하였던 대설비운전율은, 1951년에는 설비대수의 감소와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았던 단 2개의 공장이 최대한의 가동을 함으로써 약 96%에 달하였다.

조선방직 부산공장이 1,451대의 직기중에 1,403대를 가동하였으며, 조선방직 대구공장(舊 郡是紡績 大邱工場)이 255대의 직기중에 233대를 가동하였던 것이다. 즉 이 시기에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았던 공장들의 설비는 최대로 가동됨으로써 戰爭特需를 경험하였다. 직업일수에 있어서도 한국전쟁이전에는 280일 내외였던 것이 전쟁특수가 나타나던 1951년에는 조선방직 부산공장이 333.5일, 조선방직 대구공장이 333.5일을 기록하였다.

광목1필당사용인원을 보면 1948년도에 약 2명에 이르던 것이 계속 낮아져 1953년에는 약 1.1명 정도로 1/2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직포부문에서도 조업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生産

정부수립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생산량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1951년에 가장 낮은 생산량을 보이다가 1953년이 되면 전쟁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게 된다.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① 방직부문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정치적인 격변이외에 각 공장의 내부사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계설비나 기술도입은 없었지만 일제하에서 남겨진 적산설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생산현황은 아래의 <表 10>과 같다.

<表 10> 政府樹立以後 韓國戰爭期까지의 年別 紡績生產統計

項 目	單位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原絲生產量	파운드	10,456,715	23,050,873	18,706,131	6,540,205	15,042,348	20,032,480
賣絲生產量	"	2,645,325	5,116,196	4,567,205	2,695,777	6,190,086	9,277,708
綿絲實生產合計	"	13,102,040	28,167,042	23,273,336	13,051,538	21,232,434	29,310,188
20'S1時間1錘量	"	0.025	0.027	0.030	0.026	0.030	0.031
平均番數	番數	14.54	14.76	15.68	14.81	15.50	16.21
原綿消費量	파운드	16,028,018	33,352,579	27,113,018	15,230,925	25,227,821	34,916,781
收率	%	81.74	84.45	85.84	85.69	84.20	83.94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년도.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原絲와 賣絲¹³⁾를 합한 綿絲實生產量은 194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49년에는 1948년의 두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1951년에 이르면 1948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1953년이 되어서야 1949년의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여기서 생산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20'S1時間1錘量을 살펴보면 1951년이 0.026으로 제일 낮고 나머지는 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것은 생산의 효율성측면에서는 각 공장 내에서 별 변화를 가지지 않았던 상황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기계나 기술 등이 도입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原綿消費量에 대한 原絲生產量을 보여주는 收率도 정부수립 이후 1949년에 조금 상승하였을 뿐, 1950년의 85.84%를 기점으로 약간 하락하여 1953년이 되어서 83.94%가 되었다. 이는 20'S1時間1錘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공장에서 생산능률상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3) 綿絲는 原絲(Weaving yarn)와 賣絲(Sales yarn)을 나누는데 原絲는 종합적인 공정을 갖춘 공장의 織造部門에서 사용되는 綿絲이다. 반면에 賣絲란 방직시설이 없는 독립된 織造業者나 메리아쓰제조업자 또는 海外販賣用 綿絲를 가리키는 것이다(韓國產業銀行, 『韓國의 產業』, 1965, 202면 참조).

② 직포부문

직포부문에도 방적부문과 동일하게 한국전쟁으로 인한 변화외에는 각 공장내부의 변화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당시의 직포부문의 생산상황은 아래의 <表 11>과 같다.

<表 11> 政府樹立以後 韓國戰爭期까지의 年別 織布 生產統計

項 目	單位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綿布生産量	疋	692,042	1,605,940	1,433,873	751,858	1,079,750	1,510,382
廣木換算量	"	676,620	1,556,632	1,453,641	741,023	1,050,112	1,454,352
原糸消費量	파운드	10,534,582	23,266,224	19,708,488	10,677,751	14,755,336	20,039,255
收 率	%	86.80	91.30	95.01	97.17	94.50	93.90
廣木 1時間 1臺量	"	2.40	2.73	2.67	2.92	2.86	2.846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년도.

위의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綿布의 生产量은 1948년에서 1949년에 이르는 동안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해방 이후 지속된 시설의 재정비에 의한 것 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면포생产量은 급감하여 1951년에는 1949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1953년에야 전쟁전의 상황을 회복하였다.

생산의 능률면에서 볼 때 收率이 194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1951년의 97.17%를 정점으로 감소한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원료공급의 어려움, 罷災設備의 정비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그 원인이 되었다.

한편 廣木1時間1臺量이 1949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전반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각종 機料品에 대한 수입이 원활해지면서 기계설비의 효율이 높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업계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1950년대 중반에 이르면 특수용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機料品을 자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일부 나타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하지만 생산측면에서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이 시기는 전쟁으로 인해 각 공장의 내부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전쟁피해로부터의 복구가 가장 큰 문제였다.

14) 이러한 계획은 이미 1949년부터 시작되었다. 1949년 여름 '紡織機械工業振興委員會'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商工部 工業局長을 위원장으로 해서 상공부 공업국 섬유과·기계과 관계자, 대한방직협회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이 위원회는 우수한 22개 제작소를 선정한 후에 이중 몇 개 공장을 우수공장으로 지정하여 공동구매를 시행하는 등 각종 機料品의 자급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大韓紡織協會, 임의 책, 31面 참조).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2.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

면방직업계는 1947년에 '朝鮮綿紡織協會'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설정비와 생산을 시작해 한국전쟁 직전에 紡機 316,572錘에 織機 9,075臺의 설비를 갖추어 해방당시에 비해 각각 24.7%, 5.0%의 시설증대를 이룩하였다. 조업율도 최고의 호황기였던 1938년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었으며 생산량도 綿絲는 92.1%, 綿布는 132.7%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대규모 귀속기업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불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15개 공장 가운데 我軍地域에 있었던 조선방직 부산공장과 대구공장, 그리고 삼호방직 대구공장 등 두 회사의 세 개의 공장을 제외한 모든 기업체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당시 전체 공업피해의 약 70%에 해당되는 규모였다고 한다.¹⁵⁾ 귀속 면방직 기업체들의 피해상황은 <表 12>와 같다.

<表 12> 歸屬 綿紡織 企業體의 工場別 韓國戰爭 被害狀況

日帝時代 工場名	韓國戰爭時 工場名	紡機(錘)			織機(臺)		
		戰前 設備	被害 設備	被害率 (%)	戰前 設備	被害 設備	被害率 (%)
郡是紡績 大邱工場	朝鮮紡織 大邱工場	20,000	0	0	105	0	0
大日本紡績 京城工場	全南紡織 서울工場	11,000	11,000	100	413	413	100
東洋紡織 京城工場	第一紡績 서울工場	45,328	45,328	100	1,140	1,140	100
東洋紡績 仁川工場	東洋紡績 仁川工場	35,088	15,000	100	1,280	32	2.5
吳羽紡績 大田工場	大田紡織 大田工場	15,848	15,848	100	-	-	-
朝鮮大和紡績 倉洞工場	大亞紡織 倉洞工場	-	-	-	148	148	100
朝鮮棉花 木浦工場	大韓綿業 木浦工場	-	-	-	158	158	100
朝鮮紡織 釜山工場	朝鮮紡織 釜山工場	50,304	0	0	1,313	0	0
朝鮮麻紡織 全州工場	全州紡織 ²⁾	5,700	2,700	47.3	-	-	-
帝國製麻 仁川工場	東洋紡績 鶴翼工場	4,480	4,480	100	-	-	-
鐘淵紡績 京城工場	高麗紡織 永登浦工場	49,720	49,720	100	1,525	1,525	100
鐘淵紡績 光州工場	全南紡織 光州工場	38,368	38,368	100	1,510	1,510	100
鐘淵紡績 春川工場	高麗紡織 春川工場	2,140	2,140	100	176	176	100
	金星紡織 安養工場	10,496	10,496	100	50	0	0
	三護紡織 大邱工場	3,600	0	0	-	-	-
합 계		292,072	195,080 ¹⁾	66	7,818	5,102 ¹⁾	65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I-14면, II부에서 작성.

- 주 : 1) 자료내에 서로 다른 통계수치가 존재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수치를 이용하여 표를 작성하였음.
 2) 全州紡織의 경우는 II부 공장별 현황을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일부시설 燒失'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954년에 다시 조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과거 방적기 설비수는 그대로 있지만 운전가능추의 수가 戰前에 3,900추에서 1,200추로 감소되었다.

15) 大韓紡織協會, 위의 책, 1957, 8~9면.

産業研究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개 귀속 면방직공장들에서 한국전쟁 이전 292,072錘의 紡機中 195,080錘, 7,818臺의 織機중에서 5,102臺의 織機가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전체 紡機의 66%, 織機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의 1930년대 이전에 제작되었던 노후설비들이 대부분인 이 설비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하에 조선에 들어왔던 면방직설비의 대부분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 원형을 상당부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와중에서 전쟁의 피해를 결정적인 계기로 하여 고려방직(춘천), 제일방직(서울), 대아방직(창동), 대한면업(목포) 등은 공장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 공장의 일부 설비들은 疏開되거나 분해되어 판매되었을지라도 원형이 복구되지는 못하였다.¹⁶⁾

그러나 이러한 피해가 설비의 완전한 소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피해는 그 원형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설비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파괴된 시설의 일부는 1950년대 내내 계속 재생되면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綿紡織工業이 당했던 심각한 피해는 오히려 전후복구과정에서 원조혜택을 대규모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면방직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3. 대규모 귀속 면방직공장의 불하

1948년 「韓美間 財政 및 財產에 관한 最初協定」을 통해 敌產에 대한 처리권이 한국정부에 이양되었고, 일시중지되었던 매각처분이 한국정부에 이관되면서 그 해 12월에 臨時管財總局이 설치되었다.

이후 1949년에 일부 귀속재산이 불하되었으나 그 해 7월 국회와의 불화로 인해 歸屬財產 臨時措置法으로 귀속재산 처분이 중지되었다. 하지만 그 해 12월에 歸屬財產處理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대통령직속의 管財廳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950년 3월 歸屬財產處理法 施行令이 제정되고, 4월에는 지방의 관재업무를 담당할 市道管財局이 설치되어 불하업무가 준비되었다.

1950년 5월에 歸屬財產法 施行細則이 제정되고, 서울시 일부 점포가 그 해 6월 22일에 불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불하업무는 일시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미군정시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였던 귀속 면방직공장들은 불하되지 않았다.

16) 자세한 내용은 서문석, 「귀속 면방직공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11면 〈표 III-28〉 참조.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던 불하업무는 전쟁수행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서 서둘러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와중에서 귀속 면방직 기업들이 불하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불하된 기업들은 <表 13>과 같다.

<表 13> 歸屬 級紡織工場의 年度別 拂下狀況(1948~1953년)

拂下年月	日帝時代 企業體名	歸屬企業體名	被拂下者	拂下額	1961年 會社名
51.11	鐘淵紡績 光州工場	全南紡織公社	金澄楠	60億5,000萬圓	全南紡織
50.12	朝鮮紡織 大邱工場	大邱메리야스公社	李淳熙	5億2,600萬圓	內外紡織
51.10	吳羽紡績 大田工場	大田紡織公社	李錫午	12億5,000萬圓	大田紡織
51.12	朝鮮麻紡績 全州工場	朝鮮麻紡績 全州工場	金大熙 外 2名	-	全州紡織
52. 1	朝鮮織物	朝鮮織物 ¹⁾	金成坤	-	金星紡織
52. 3	大日本紡績 京城工場	全南紡織公社 서울工場	박찬주	5,399萬圓	韓永紡織
52. 9	帝國製麻 仁川工場	東洋紡績公社 鶴翼工場	張龍雲	2,821萬圓	興韓紡績
53. 6	東洋紡績 安養工場	第一紡績公社 安養工場	徐善夏	1억8,018萬圓	太平紡織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III부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년도, 자료 편 섬유단체 회원요람.

주 : 1) 금성방직이 殘有動產과 不動產을 불하받았던 朝鮮織物株式會社는 1932년 일본인 면사포 상인들이 직기 1,050대와 200인 이상 규모의 인견생산업체로 설립한 것이다(권태억, 『한국근대면업 사연구』, 일조사, 1989, 277~278面 참조). 하지만 일제말기에는 박홍식 소유의 조선비행기회사가 이 곳에서 비행기를 조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직물생산부문은 극히 축소되어 있었다 (黃明水, 「省谷과 金星紡織」, 『經營史學』 제2집, 1987).

IV. 한국전쟁 이후 1961년까지의 면방직공업

한국전쟁으로 인해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던 면방직공업은 재건계획을 통해 상당한 설비를 재생하고 1954년부터는 신규설비를 도입하는 등 급격한 발전을 이루하였다. 이 장에서는 전재복구과정을 살펴보고 각 부문별 상황과 함께 이 시기에 있었던 대규모 귀속 면방직공장의 불하에 대하여 살펴본다.

1. 戰災復舊

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1951년 12월에 면방직업계는 '緊急再建計劃'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실시될 장기부흥계획의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전쟁의 피해를 입은 설비(罹災設備)를 재생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紡機 86,824錘와 織機 748臺를 재생

하고 1953년 12월 말로 종결되었다.¹⁷⁾

이후 長期再建計劃은 1952년 1월 31일 면방직공업부흥의 기본지표라고 할 수 있는 '織維工業復興 메모란담'¹⁸⁾이 발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메모란담'(Memorandum)은 정부보유 23만달러로 구매한 機料品과 UNCACK에서 계획하고 있던 583,582달러로 機料品을 보충하여 당시 7개의 운전중인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77,800추의 紡機를 166,000 추로, 2,061대의 織機를 필요에 따라 2,550대로 늘려 조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¹⁹⁾

한편 이 시기에는 綿絲需給이 충족될 때까지 직기를 늘리는 것이 금지되었고 부흥건설의 우선권이 軍需要位置(남에서 북으로)와 資本投資能力 등에 의해 부여되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韓國綿紡織工業 復興對策要綱'²⁰⁾이 1952년 12월에 발표되었는데 1953년부터 5년간 해방 이후 최초로 紡機 398,000추, 織機 8,522대의 新規設備를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긴급재건계획에 따른 여러 지원책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1953년까지 총 86,824추의 방기와 748대의 직기를 재건하였다. 이 시기까지 새로운 방기와 직기의 도입은 전혀 없었으며 다만 마련된 자금으로 도입한 機料品을 사용하여 기존 설비를 재건하였다.

1954년부터는 본격적인 罷災設備의 재생이 이루어졌으며 대규모의 설비복구가 끝나는 1955년에 이르면 약 18만추의 紡機와 약 6천대의 織機가 재생되었다.

2. 부문별 상황

1) 資金

1954년에는 政府保有 550만달러로 泰昌紡織에 紡機 50,000추와 織機 1,200대를 도입하였는데 일제하에서 남겨진 적산설비만을 가지고 운영되던 면방직업계가 원조자금과 정부

17) 이 계획에서는 1949년 ECA자금과 정부보유달러 23萬달러로 도입된 기재가 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며, 소규모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를 기업에 한하여 자유판매를 허용해 주기도 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있었다.

18) 전문은 大韓紡織協會, 앞의 책, III부 34~37면을 참조 바람.

19) 이 계획은 기존공장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 이유는 기존공장들이 기술자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공장들의 규모를 크게 할수록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였다. 또한 전쟁피해를 입은 공장이라고 해도 일부건물은 남아있었으며,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파손된 것은 아니었으며 발전기나 기타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회복이 더욱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었다.

20) 이 요강의 전문은 大韓紡織協會, 위의 책, III부 37~39면을 참조 바람; 주요한 내용은 ⑦도입설비의 소화 대상, ⑧도입설비의 배분순위와 조건, ⑨적정규모의 한계, ⑩기업참가의 기회조성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명시된 조치들은 ⑪귀속기업체의 불하, ⑫긴급재건계획의 급속완수, ⑬자금조달, ⑭국산면의 증수대책, ⑮면방직공업부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⑯기본적조사, ⑰稅의 경감 또는 면제 등이었다.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보유자금으로 신규설비를 도입하고 구형설비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機料品을 도입함으로써 이 시기의 면방직업은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정부보유달러 58만달러를 통한 機料品의 도입은 많은 설비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UNKRA자금을 통한 2,100대의 직기 도입은 당시까지 방적설비만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포설비의 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957년 이후의 자금은 주로 설비자금이었는데, 대규모의 증설보다는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자금으로 인해 1956년 이후에는 면제품의 자급자족과 더불어 해외진출까지 시도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21)

2) 原料

1947년 원면이 수입되기 시작한 이래로 국산면은 그 수확량이나 수집량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한국전쟁이후에는 더욱 심화되었다. 당시의 국산면의 수확량과 수집량은 아래의 <表 14>와 같다.

<表 14> 年別 國產綿(實綿)收穫, 收集統計

區 分	收 穫 量(斤)	收 集 量(斤)	對生產買上率(%)
1954	78,681,470	7,342,927	9.3
1955	97,725,782	1,429,148	1.4
1956	81,614,738	651,860	0.7
1957	43,798,929	210,681	0.4
1958	37,545,858	594,636	1.5
1959	40,921,310	327,787	0.8
1960	31,649,216	970,465	3.0
1961	45,898,946	2,969,993	6.4

자료 :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各年度에서 작성.

위의 <表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이후 원면의 수확량은 1955년의 9,700萬斤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60년에는 3,100萬斤까지 감소하였다. 수확량이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집량은 21萬斤에 이를정도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해방 이전에 60~70%를 기록하던 對生產買上率도 1955년에는 0.4%까지 감소하였다.

당시에 수확량보다 수집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정부수립이후 한국전쟁기에서와 마

21) 이 시기의 자금공급을 맡았던 산업은행의 자료를 통한 면방직공업에 대한 대출내역은 공제육,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3, 161면을 참조 바람.

産業研究

찬가지로 자가수요나 소규모공장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 후반 연간 국내의 원면소비량이 약 20萬俵를 상회하고 있는데 국산면의 투입량은 1961년을 제외하면 소비량의 0.1~0.3%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규모 면방직공장들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수입원면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3) 操業

한국전쟁이 끝나자 마자 가장 먼저 재건사업에 착수하였던 면방직공업은 이미 1953년에 재건의 기틀을 확보하였다. 긴급재건사업과 이를 이은 장기재건사업으로 1954년이 되면 한국전쟁이전의 조업상태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신규설비의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발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① 방적부문

1954년에는 1953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신규설비로 인해 조업능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 시기의 구체적인 조업상황은 아래의 <表 15>과 같다.

<表 15> 韓國戰爭以後 1961年까지의 年別 紡績操業統計

項 目	單位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設備錘	錘	(177,432) 157,809	(350,872) 253,524	(370,632) 360,259	(434,232) 402,890	(415,552) 425,084	(432,492) 442,727	(452,512) 452,626	(459,848) 459,390	(468,900) 461,555
對設備運轉率	%	81.10	78.72	78.08	67.46	77.14	80.00	85.15	89.10	88.59
運轉錘累計	錘	91,680,041	145,780,797	158,598,234	183,937,308	249,135,890	268,685,278	294,769,241	309,811,065	287,348,166
作業日數	日	313	310	294	314	313	311	311	312	293
作業時間	時間	6,607	6,398	5,848	6,219	6,588	6,394	6,538	6,428	5,830
運轉時間	"	5,731	5,844	4,886	5,414	6,078	6,069	6,191	6,055	5,614
作業人員累計	名	2,125,625	2,860,527	3,173,751	2,678,191	3,216,096	3,232,809	3,557,998	3,676,378	3,245,329
20'S相當使用人員	"	37.12	28.31	24.47	17.64	15.43	14.31	14.10	13.72	12.77

자료 : 大韓紡織協會,『紡協創立十周年記念誌』, 1957 ; 大韓紡織協會,『纖維年報』,各年度.

<表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적부문에서는 전체설비에 대한 운전주의 비율을 보여주는 對設備運轉率이 1956년까지는 하락하다가 1957년부터는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956년까지 증설이 계속된 재생설비의 저효율과 신규 도입설비의 가동이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7년 이후 증가되는 것은 신규설비의 가동이 정상화됨과 동시에 국내의 수요 부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해외수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운전율이 계속 높아졌던 것이다.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20'S原絲를 1捆 생산하는데 소요된 人員을 나타내 주는 20'S捆當使用人員은 37.12명에서 12.77명으로 약 34%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설비의 현대화와 더불어 조업능률의 상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직포부문

이 시기 직포부문의 조업현황은 급격한 설비의 증설에 따라 운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작업일수면에서는 약 310일 정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업이 정상적인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廣木1疋當 使用人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조업 능률이 상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당시의 상황은 아래의 <表 16>과 같다.

<表 16> 韓國戰爭以後 1961年까지의 年別 織布 操業統計

項 目	單位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設 備 台	臺	3,715	4,527	6,311	7,310	9,920	10,441	10,300	10,136	9,985
對設備運轉率	%	89.66	87.32	83.83	79.85	72.09	70.24	70.86	63.95	63.03
運轉臺累計	臺	2,554,452	3,138,273	3,571,798	4,046,423	5,298,979	5,334,557	5,346,270	4,777,802	4,328,815
作 業 日 數	日	313	310	305	312	311	307	311	310	301
作 業 時 間	時間	6,717	6,730	6,089	6,060	6,353	6,052	6,439	6,194	5,588
運 轉 時 間		6,135	6,352	5,402	5,546	5,928	5,822	5,860	5,897	5,504
作業人員累計	名	1,655,698	1,916,455	2,260,227	2,038,548	2,376,013	2,456,642	2,690,818	2,555,895	2,245,707
廣木1疋當使用人員		1.14	1.10	1.04	0.79	0.68	0.64	0.66	0.64	-

자료 : 大韓紡織協會,『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 大韓紡織協會,『纖維年報』,各年度.

위의 <表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 직포부문의 對設備運轉率은 1954년에 87.32%에서 1961년에는 63.03%로 하락하였다. 이것은 1954년의 경우 한국전쟁으로 인한 설비의 복구과정에서 전쟁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공장들만 조업이 하였기 때문에 조업율이 높았으며, 전쟁의 복구과정이 끝나가면서 서서히 많은 공장들이 조업을 시작하였고, 신규설비들이 도입되면서 노후설비에 대한 조업을 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57년에 들어서면 이미 국내의 소비량을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의 생산량으로 인해 운전률이 감소하였다.

廣木1疋當使用人員은 1.14명에서 1960년에는 0.64명으로 약 절반으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설비의 현대화와 기술의 향상 등으로 노동력의 사용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었던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

4) 生產

가장 먼저 전쟁 복구작업을 진행하였던 면방직공업은, 방적부문이나 직포부문 모두에서

産業研究

1953년이 되면 생산량이 한국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재건되었으며, 1954년에는 한국전쟁 이전의 거의 2배 이상의 수준이 되었다.

① 방적부문

설비의 증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953년, 1954년, 1957년에 급격한 생산량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1960년을 기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의 적산설비에 의존했던 1953년에 비해서 신규설비의 도입이 시작되는 1954년부터 신규도입이 일단락되는 1957년까지는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공급과잉과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는 1961년에는 감소하였던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의 <表 17>과 같다.

<表 17> 韓國戰爭以後 1961年까지의 年別 紡績生產統計

項目	單位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設備錘	錘	(177,432) 157,809	(350,872) 253,524	(370,632) 360,259	(434,232) 402,890	(415,552) 425,084	(432,492) 442,727	(452,512) 452,626	(459,848) 459,390	(468,900) 461,555
原絲生產量	파운드	20,032,480	22,898,265	29,072,073	34,113,868	45,541,308	48,351,868	51,917,083	50,354,396	43,347,754
賣絲生產量	"	9,277,708	23,011,531	29,503,790	334,778,622	45,740,179	48,103,191	54,968,555	58,120,927	54,074,430
綿絲實生產合計	"	29,310,188	45,909,796	58,575,863	67,591,730	91,281,487	96,455,059	106,885,638	108,475,323	97,422,184
平均番數	番數	16.21	18.33	18.02	18.25	18.43	18.84	18.89	19.64	20.45
原綿消費量	파운드	34,916,781	54,230,142	68,618,247	78,628,257	105,380,686	110,770,373	122,568,620	123,424,637	108,843,446
收率	%	83.94	84.66	85.36	85.96	86.62	87.08	87.20	87.89	89.51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년도.

위의 <表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原絲와 賣絲를 합한 綿絲實生產合計를 보면 1953년에 약 3,000萬파운드이던 것이 1954년에는 약 4,500萬파운드로, 1961년에는 약 9,700萬파운드를 생산함으로써 약 3배 이상의 생산량 증가를 가져왔다.

더욱 구체적으로 織布用 原絲의 경우 1953년에 약 2,000萬파운드였던 것이 1961년에는 약 4,300萬파운드로 2배 이상의 생산량 증기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市販用 賣絲의 경우는 약 930萬파운드의 생산량에서 약 5,400萬파운드로 6배 정도로 생산실적이 증가하였다.

조업능률면에서 보면 原綿消費量에 대한 原絲生產量을 나타내 주는 收率은 83.94%에서 89.51%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어주는 것으로 동일한 양의 원료를 이용하여 더욱 많은 생산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직포부문

면포생산량은 1954~1955년의 UNKRA자금으로 2,100대의 신규직기와 태창방직의 1,200대 증설이 완료되는 1957년까지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면포의 생산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량은 195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급격한 증설에 따른 설비과잉으로 나타난 초과공급으로 인해 그 생산량을 줄였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기존의 노후한 적산설비를 철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廣木8時間當1臺量을 보면 각 직기당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직포부문의 조업상황은 〈表 18〉과 같다.

〈表 18〉 韓國戰爭以後 1961年까지의 年別 織布 生產統計

項目	單位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設備臺	臺	3,715	4,527	6,811	7,310	9,920	10,441	10,300	10,136	9,985
運轉可能臺	"	3,547	4,339	6,010	6,836	9,465	10,108	9,697	9,699	9,488
綿布生產量	疋	1,510,382	1,825,982	2,195,964	2,588,201	3,470,100	3,725,281	3,983,479	3,772,071	3,325,132
廣木換算量	"	1,454,352	1,759,062	2,178,397	2,587,932	3,500,283	3,870,867	4,203,328	3,884,551	3,530,845
原糸消費量	파운드	20,039,255	22,844,481	28,869,498	33,206,357	45,213,828	48,313,745	51,941,285	49,091,581	43,200,911
計算原糸量	"	18,816,430	21,532,133	26,977,151	31,836,850	43,454,971	46,697,084	50,063,702	47,437,467	41,940,682
收率	%	93.90	94.26	93.45	95.88	96.11	96.65	96.39	96.63	97.08
廣木 8時間 1台量	碼	22.77	22.42	24.40	25.58	26.42	29.02	31.51	32.52	32.63
廣木 1時間 1台量	"	2.846	2,803	3.05	3.20	3.30	3.63	3.94	4.07	4.08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各年度.

위의 〈表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포의 생산량은 1954년에 182萬疋에서 1959년에 398萬疋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1960년부터는 감소하였다. 이것은 1959년이 되면 신형직기의 증설이 거의 끝나게 되는데 이 때까지는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이후에는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해 노후설비를 改替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다.

조업능률면에서 먼저 廣木으로 환산한 織機 1臺當 8時間의 生產量을 나타내는 廣木8時間當1臺量은 22.77碼에서 32.63碼로 약 70%정도 상승하였다. 이것은 1950년대 중반에 되면 일제하에서 설치된 노후설비에 소요되는 機料品의 자체조달과 기술수준의 향상이 나타났고, 이와 더불어 노후설비를 신규직기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직기당 생산능률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原絲消費量에 대한 綿布生產量을 나타내는 收率은 93.90%에서 1961년에는 97.08%로 증가하였다. 생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는 설비의 현대화와 기술의 향상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3. 대규모 귀속 면방직 공장의 불하

195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불하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我軍占領地域인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불하는 정부가 戰費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전쟁중에도 계속되었다.

한편 휴전이후 전후 복구과정에서도 복구자금의 확보와 원조당국의 권유로 인해 불하가 계속되어 1956년에 사실상의 대규모 면방직공장들의 불하가 종결되었다.

이 시기의 귀속면방직공장의 불하실태는 위의 〈表 19〉와 같다.

〈表 19〉 歸屬 級紡織工場의 年度別 拂下狀況(1954년 이후)

拂下年月	日帝時代 企業體名	歸屬企業體名	被拂下者	拂下額	1961年 會社名
55. 8	郡是紡績 大邱工場	朝鮮紡織 大邱工場	薛卿東	7億圓	大韓紡織
55. 8	東洋紡織 仁川工場	東洋紡績公社	徐廷翼	25億圓	東洋紡織
55.10	朝鮮紡織 釜山工場	朝鮮紡織 釜山工場	姜一邁	35億圓	朝鮮紡織
56. 1	鐘淵紡績 京城工場	高麗紡織公社	白樂承	1億7,000萬圓	泰昌紡織

자료 :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十周年 記念誌」, 1957, III부 ;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各年度, 資料編 纖維團體 會員要覽.

주 : 金星紡織은 朝鮮織物會社의 殘有動產과 不動產을 불하받았지만 이 회사는 실제로는 해방이전에 朝鮮飛行機會社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表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이후 1950년대 중반에 당시의 최고규모의 면방직 공장이던 조선방직, 동양방직 등이 불하되면서 대규모 면방직공장들의 불하가 끝났다.²²⁾

V. 맷음말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요인에 대한 논의 중에서도 한국의 역사적 기반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은 일제시대의 유산에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듯 하다. 즉 한국의 고도성장에는 일제의 조선통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식의 논의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의 큰 맹점은 일제하의 식민지자본주의의 이식을 해방후 한국의 자본주의적 성장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마치 일제하의 조선을 독립된 시민국가로 상정하고 이를 통해 식민지로서의 모든 왜곡을 사상해 버린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제하의 식민지자본주의적 이식을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논의도 존재한다. 즉 일제하의 자본주의적 요소의 발전은 일본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

22)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기업의 규모를 통한 면방직공장들의 불하상황은 공제욱,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3, 111면 참조 바람.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요소가 결코 인류의 최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타율에 의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이식을 반드시 부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인 물적 관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일제하의 식민지자본주의적 이식, 소위 '식민지조선의 공업화'와 1960년대 이후의 한국의 고도성장사이에 놓여 있는 해방 이후 1950년까지의 시기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작업으로서 식민성을 담지하고 있는 귀속재산으로서, 그리고 향후 종속성의 고리가 되는 원조수혜자로서의 면방직공업을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 미군정기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미군에 의한 적산의 접수, 적산의 관리를 축으로 그 주변에 관리인들이 선정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군의 지원이 시작되었던 시기였다.

총 337,312추의 紡機중에서 91%에 해당하는 307,112추와 총 9,609대의 織機중에서 89.3%에 해당하는 8,583대의 織機를 귀속면방직공장이 보유함으로써 미군정에 의해 면방직공업이 완전히 장악되었던 시기였다. 미군정은 각 공장을 몇 개의 계열로 통합하여 각 공장에 관리인을 두는 체제로 귀속 면방직공장을 관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리인들은 각 공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아니라 주로 일제하의 관리, 미군정청 관리, 상공업자 등을 선임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이 규정되는 전형적인 상황이 면방직공업계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면방직공업에 대하여 특별한 자금지원이 없었으며 1947년부터 도입된 원면은 품질이 낮고 장기간 저장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설비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작업일수도 늘어나고 있었지만 노동생산성면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면사의 생산량은 늘어난 반면, 면포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설비의 효율이나 수율면에서는 모두 상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시기는 정부수립이후 한국전쟁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정비되어가고 있던 면방직공업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70%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완전히 소멸된 공장들도 나타나고 설비도 신규설비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부와 원조당국의 도움으로 機料品과 원면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도 진행되었다.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3개의 공장에서의 조업률의 크게 증가하였으며, 생산면에서도 전쟁에 의한 손실을 제외하고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 또한 1951년~1953년 사이에 戰費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귀속 면방직공장들의 상당수가 불하되었다.

產業研究

세 번째 시기는 한국전쟁이후 1961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각 기업체들에서 피해설비를 재생하고 신규설비를 도입함으로써 면방직공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정부보유달러와 UNKRA보유달러가 주로 설비자금으로 제공되었으며 원면은 국내면이 거의 사라져 국산면의 투입량이 0.1%정도까지 하락하였다. 조업면에서는 설비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생산면에서는 급격하게 상승하였지만 후반에는 오히려 국내수요가 감퇴함으로써 생산이 위축되었다. 또한 불하는 1955년후반부터 1956년 초반까지 모두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 경성방직주식회사, 『경성방직 50년』, 1969.
- 경영사학회 편, 『성곡 김성곤 연구』, 1988.
- 공체욱,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3.
- 권태억, 『한국근대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90.
- 대한방직협회, 『방협창립십주년기념지』, 1957.
- 대한방직협회, 『섬유년보』, 각 년도.
- 동일방직주식회사, 『동일방직사사: 1955~1981』, 1982.
- 이대근, 「정부수립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그 처리과정」, 안병직 외, 『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일조각, 1993.
- 이대근, 「해방후 귀속사업체의 실태와 그 처리과정」, 안병직 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1990.
- 재무부, 『재정금융의 회고』-전국십년업적, 1958.
- 전방주식회사, 『전방 30년』, 1984.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산업경제 10년사』, 1955.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의 산업』, 1962.
- 韓國生產性本部 產業經濟研究所, 『韓國의 工業』, 韓國生產性本部, 1971.
- 韓國纖維產業聯合會, 『纖維年鑑』, 각 년도.
- 한국은행 조사부, 『경제년감』, 각 년도.
- 한국은행 조사부, 『경제통계연보』, 각년판.
- 한국일보사, 『재계회고』 1~10, 1981.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한국 면방직공업에 관한 연구

- 황명수, 「성곡과 금성방직」, 『경영사학』 제 2집, 경영사학회, 1987.
- 황명수, 「한국기업의 발달」(1910-1945), 『논문집』 14호, 단국대학교, 1980.
- 황명수, 『기업가사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서울, 1976.
- 米川伸一, 『紡績業の比較經營史研究 : イギリス・インド・アメリカ・日本』, 東京 : 有斐閣, 1994.
-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巖南堂, 1979.
- 神谷不二 編, 『朝鮮問題戰後資料』, I, II,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6.
- 鈴木義嗣, 「50年代 韓國經濟의 成長과 工業化」, 梶村秀樹 외(우대형 역), 『한국경제의 구조』, 학민사, 1985.
- 中村哲 編, 『東アジア資本主義の形成』, 東京 : 青木書店, 1994.
- 河合和男・尹明憲, 『植民地期の朝鮮工業』, 東京 : 未來社, 1991.
- 花房政夫, 「韓國綿工業の發展過程」, 山田三郎 編, 『韓國工業化の課題』, 1971.

